

6월30일 Market Index			
 코스피	3071.70 (+15.76)	 코스닥	781.50 (-0.06)
 금리 (국고채 9년)	2.452 (-0.001)	 환율	1352.60 (-4.80)



우주용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전자업계, 우주산업 진출 본격화

LG, 2032년 달 착륙 목표
탐사로봇 테스트 사례 소개
삼성, 위성통신 기능 집중
우주용 반도체 실증 등 병행



챗GPT로 생성한 '우주산업 도전' 이미지.

국내 전자업계가 우주산업을 향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글로벌 우주 시장이 204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30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우주항공청(KASA)과 간담회를 열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 사업 전략을 공식화했다.

LG는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UEL)와 공동 개발 중인 달 탐사로봇(로버) 주행 테스트 사례도 소개했다. 로버는 달과 행성 표면을 이동하며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

인 차량이다.

이 로버에는 ▲LG전자의 자율주행 제어 기술 ▲LG이노텍의 정밀 광학 센서 ▲LG에너지솔루션의 우주용 배터리 등이 적용됐다. 특히 LG이노텍은 향후 로버에 자체 개발 중인 우주 탐사용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실시된 실증 테스트에선 이노텍의 시제품 카메라가 장착돼 성능 검증을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6년 NASA의 우주복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식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주비행사의 생명 유지용 산소 공급 장치, 통신 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에 탑재된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스타십' 발사체에 사용되는 원통형 배터리 공급도 수주하며 우주 배터리 관련 글로벌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LG는 오는 11월과 내년 예정된 누리호(한국형 발사체) 4·5차 발사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지원, 우주 환경 시나리오 분석 등 사업 모델 다각화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위성통신 기능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과 X80 5G 모델 기반의 '스냅드래곤 새틀라이

트'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이나 통신 음영 지역에서 SMS 송수신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주용 반도체 실증과 인프라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천문연구원(KASI)과 함께 NASA의 아르테미스 II 임무에 투입될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자사 반도체 칩을 해당 위성에 탑재해 우주 방사선 내성 및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시장은 2025년 4300억 달러(약 560조 원) 규모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4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전문가가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반도체, 배터리, 정밀 센서 같은 첨단 부품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 향후 우주 생태계에서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 14:00)
- ◆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상법개정, 지금이 결단할 때”... “재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경제단체〉

與-경제6단체 상법간담회
민주당 코스피 주가상승 기대
경제계, 이사 의무 확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개정과 관련해 “지금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 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점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형 의원. /뉴시스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5월 산업생산 1.1% 감소 투자 급감, 소비도 제자리

5월 산업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를 나타냈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 역시 살아나지 못 하고 전월에 비해 보험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1% 줄었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 1.6% 감소했다가 2월(+0.7%)과 3월(+1.1%)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다 4월(-0.8%)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늘어난 반면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줄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1차금속(1.5%) 등에서 생산

이 늘었으나 의약품(-10.4%), 금속가공(-6.9%) 등에서 생산이 줄어 2.9% 감소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 의약품, 금속가공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 3.1% 줄어든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최장용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전 산업 생산의 2개월 연속 감소는 지난해 5~7월 3개월 감소한 이후 처음”이라며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금속가공 등에서 줄었는데 의약품은 일부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단가 낮은 상품들의 생산 비중을 늘린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李, 국정안정 시급 ‘속전속결 조각’... 청문 정국 ‘촉각’ /사진 뉴시스
- ▲국정위 “금주 국정과제 초안 마련... 재정 투자 사업 검토 진행”

- ▲野, 김민석 지명 철회 촉구... “배추 농사·증여세 의혹 눈덩이”
- ▲민주 “국힘, ‘친윤당’ 회귀... 내란·극우세력 벗어나길 거부”

- ▲‘전략·정책통’ 행안장관 후보 윤호중...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 속도 불나
- ▲개혁신당, 올 7월27일 전당대회 열고 신임 지도부 선출

7.8조 KDDX 사업, 경쟁입찰 추진 가능성… 한화오션에 기회

(한국형 차기 구축함)

6000톤급 6척 건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1년 넘게 지연되는 중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경쟁입찰 지지

“HD현대중, 군사기밀 위반 전력
경쟁입찰 진행시 한화오션 이점”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수의계약’을 벗어나 ‘경쟁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과거부터 ‘경쟁입찰’을 주장해온 그의 입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에 경쟁입찰이 현실화될 경우, 한화오션에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6000톤급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야드.

/한화오션

오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방위산업계와 국방부 모두 향후 10년 전력증강 계획을 좌우할 중대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 선정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KDDX 사업은 통상적으로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

계 및 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로 진행된다. 현재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개념설계는 함정의 초기 설계를 그리는 단계이며, 기본설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와 장비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를 원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경쟁입찰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방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입찰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한화오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년간 활동하며 방위산업에 정통한 인물로, 과거 KDDX 사업을 비롯한 주요 방산 프로젝트에 대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지지하는 자율경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업계 관례대로라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을 가능성이 컸지만, 안 후보자의 등장으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당장 7월 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가 경쟁입찰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경우 수의계약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올해 11월까지 약 2점에 달하는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한화오션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것을 발휘할 수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KDDX 사업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 선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월 국방부장관 선임 후 방사청장까지 정해지면 사업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악성 미분양’ 2.7만호… 12년여 만에 최대

국토부, 5월 주택통계

준공 후 미분양 전월대비 2.2% 증가
비수도권서 2만2397호 대부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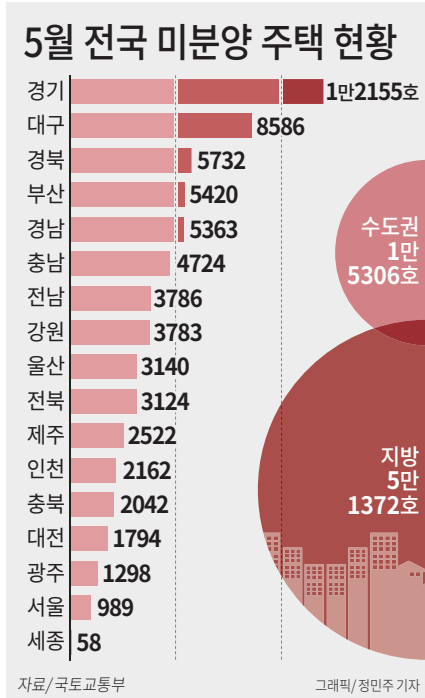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7000호를 웃돌면서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13호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비수도권 물량이 2만2397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844호가 가장 많았고, 경북(3357호)과 경남(3121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78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수도권 1만5306호, 비수도권 5만1372호 등이다.

주택 공급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들



은 모두 악화됐다.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424호로 전월 대비 15.0%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인허가가 8630호로 전월 대비 39.5%

나 줄었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는 인허가 실적이 11만4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다.

착공은 1만5211호로 전월 대비 39.3% 감소했다. 수도권은 9157호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는 전국 7만42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줄었다.

준공은 2만6357호로 전월 대비 24.9% 감소했다. 누적 준공은 16만5496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었다.

분양(승인)은 5월 1만1297호로 전월 대비 44.1% 급감했고, 누적으로도 5만2982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7% 줄었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2703건으로 전월 대비 4.2%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7221건으로 전월 대비 10.1% 줄었다. 반면 전국 전월 세 거래량은 25만2615건으로 전월 대비 10.5%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5월 누적 국세수입 172조… 21조 늘어

기재부, 세수 진도율 45.1% 집계
전년 44.9%… 별다른 차이 없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0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세수 결손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겉혀야 할 세금 가운데 걷힌 세금의 비중인 ‘세수 진도율’이 최근 5개년 평균에 못 미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법인세수가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 14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수도 근로자수 증가 및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6조2000억 원 늘어난 57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6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00억 원, 관세는 4000억 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1조 원 줄었고 환급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4000억 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45.1%로 집계됐다. 이는 30조 원 넘는 ‘세수 펀크’가 닳던

지난해 동기(44.9%)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 했다. 최근 5개년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입경정이 반영돼 세수 진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382조4000억 원에서 372조1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낮아지면서 견힐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체 세수 누계 진도율은 본 예산 기준으로 45.1%로 5년 평균(46.2%) 대비 1.1%p 정도 저조한 수준”이라며 “세입경정(372조1000억 원) 기준으로 하면 46.3%가 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SKT, 유심해킹 위약금 여부 4일 결론

귀책사유·손배 책임 법적 성격

‘위약금 면제’ 관련 핵심 쟁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오는 7월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통신 인프라인 HSS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 일정은 국회 측과 조율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 4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 면제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인 ‘유심 정보 유출이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용자 측은 보안 실패도 통신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이번 사고가 음성 통화나 데이터 전송 등 통신의 본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인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용자 측은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의 법조인은 위약금 면제는 약관 해석에 근거하고,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의 집단 분쟁 절차도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4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하며 총 3510명이 참여한 절차를 공식화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3266명을 대리해 신청하면서 참여 규모가 급증했으며, 나머지 2건도 서류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안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실패회복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 중이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 및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객실패위원회, 고객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가입자 수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위약금 면제가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약 열흘 후인 5월부터 신규 가입자 유치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 작업에만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인원은 총 81만6000명에 달한다.

위약금 면제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도 부담 요인이다. 면제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의 보안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기업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약금 면제가 선행되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통신업계 전체가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韓 증시, 저평가 해소 구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다져야”

이제 5000이다

⑥ 전문가 분석·제언

‘한국의 닥터둠(Doom·파멸, 비관론자)’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자산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데 있어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시경제 전문가다. 2022년 초 증시가 최고점을 경신하던 시점에 “주가 폭락이 온다”고 경고했고, 실제 시장이 급락하자 그의 분석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코스피 3000선 회복장세에서도 그는 과열이라는 평가에 선을 그었다. 다만 “5000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실화하긴 어렵다”고 경계했다.

김영익 교수, 단기 지수 3200 예상
외국인 수급 주목… 추가 상승 전망
“실물보다 주식시장 저평가 상태”

◆ “코스피 반등, ‘착시’가 아니다”

김 교수는 이번 코스피 반등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주가가 실물경제 대비 저평가돼 있던 상태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착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승 여력을 언급해왔다. 그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명목 GDP와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약 24% 저평가된 상태였다. 올해 명목 GDP가 2.9% 성장한다고 보면, 적정 지수는 3200을 넘는다.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승을 가능케 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수급 요인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줄었고,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며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객 예탁금은 물론 증시 주변자금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수급에 주목했다. 그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외국인이 인식하고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랐다”며 “외국인이 지금처럼 계속 사면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기업가치가 오른 것도 아니고 이익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주가가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긋는 이유다.

◆ “5000은 정책만으로는 어렵다… 지수보다 구조”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 김 교수는 “어렵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수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 구조를 들며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3.8% 정도다. 이 흐름대로라면 2040년 기준 코스피는 4440 수준이 적정치”라며 “제도 개선, MSCI 편입, 지정학 리스크 완화 같은 요소가 보태지지 않으면 경제만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코스피 5000 도달보다 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손진영 기자 son@

중요한 것으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로 예상하는 적정 지수는 3200이고, 이후부터는 기업이익이 주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은 5%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수 상승의 주체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시장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시대는 아니다”라며 주식시장도 우량주 몇 개 중심으로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 옛날 큰아들 밑어주듯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장세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21년은 ‘코로나19 직후 수출 과열’로 주가가 과대평가됐다. 당시 코스피가 3000이 넘었는데 그때도 2200이 적정하다고 이야기 했었다”면서 “반대로 지금은 실물보다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 환율, 외국인, 그리고 중요소생산성

그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 간 함수 관계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코스피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른다. 통계적으로도 코스피가 환율을 설명하는 힘이 더 크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외국인 순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지만, 환율이나 코스피를 보고 중기 시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AI 활용 등 ‘생산성 제고’ 제언
과제로 ‘낮은 잠재성장률’ 꼽아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할 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과제로는 낮은 잠재성장률을 꼽았다. 그는 “지금 우리 잠재성장률은 1.5~1.8% 수준이다. 이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지수도 일정 한계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AI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AI는 제조업, 금융, 유통, 의료, 행정까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며 “AI는 생산성을 끌

어울릴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로, 여기에 잠재성장률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 대타협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지수는 시장이 만드는 것… 정부는 생산성 투자 집중해야”

김 교수는 정부가 ‘지수’ 자체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지수는 시장이 결정한다. 정부가 노력하면 조금 더 오르게는 할 수 있겠지만, 금리도 환율도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제도적 보완일 뿐, 결국 명목 성장률, 기업 이익, 금리, 환율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주가 상승을 정책 효과로만 보는 건 오류로 보고 일본의 경우는 명목 GDP가 오르면서 닛케이 지수도 따라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디플레이에서 탈출한 게 핵심이고, 정책은 약간의 플

러스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추경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지금 능력보다 못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이라며 “추경 같은 걸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해선 “한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3.8% 수준으로 G20 평균보다 훨씬 낮고 아직 재정 측면에서는 건전한 편”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곳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로는 지정학적 충격을 들었다. 그는 “미국이 예전처럼 세계 경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동에서도 긴장이 커졌다. 이런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Busan is good

부산이아 좋다

GLOBAL
HUB
CITY
BUSAN

아이가 꿈꾸는 미래를 만듭니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글로벌 물류도시로 부상합니다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인프라,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추진
인프라 조성 및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도약
도시 공간 혁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부산의 미래혁신 기반 구축
남부권의 관문,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물류중심도시 조성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금융의 혁신성장 견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 완성
혁신적 투자·성장 지원으로 아시아 창엽도시 부산 조성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로 도약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지식혁신 선도도시 견인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로 거듭납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첨단 ICT 신기술 기반 디지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주력산업 첨단화 및 미래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선진도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세계적 수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
글로벌 영상·콘텐츠 및 일상이 즐거운 생활체육 천국도시 조성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육성

혁신의 인프라와 혁신 산업, 그리고 혁신 인재를 통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혁신의 파동을 만들어 갑니다

혁신의 핵심 인프라 / 가덕도신공항 / 혁신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 혁신 인재 양성과 자산·학 협력 / 공간 혁신, 디자인 혁신, 그린 혁신 / 글로벌 수준의 문화관광 도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퇴직연금’ 개혁 본격화… 체불 문제해결, 수익률 개선 집중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방안 논의
해외모델 참조 제도 재설계 의견도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의무 가입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논의한다. 일각에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 모델을 참조해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준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퇴직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금이 ‘목돈’으로 지급되는 만큼 노후 자금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7월부터는 신규 개업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미 도입 시에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4%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7%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5~29인 사업장은 가입률이 41.4%에 그쳤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가입률이 10.4%에 불과했다.

영세 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 시 목돈으로 지불하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은 매달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관리 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신고된 임금 체불 신고액 가운데 38.3%는 퇴직금 체납이 차지하는 등 퇴직금 제도가 임금 체불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것.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

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기금형 퇴직금은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정치권의 오랜 화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은 ‘민간시장 위축’과 ‘퇴직연금 갈아타기’ 등 수익률 제고 방안 도입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권 주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밑돌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빠르게 재부상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

는 가운데 일각에선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 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네덜란드 모델’과 ‘호주 모델’을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중앙은행이 감독하고, 운용 회사가 기금형태로 연금을 운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일시금 수령을 금지한다. 호주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으로, 가입자가 별도의 상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투자 경험이 적은 가입자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단일 디폴트옵션 ‘마이수퍼(Mysuper)’에 자동 가입하도록 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나라 퇴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률은 약 10.4%에 불과하다”라면서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명확하게 인식한 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지명… 탈원전 우려 해소 ‘기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체코원전 수주 등 산업 회복 가능성
일각선 두산에너지빌리티 실적입증 요구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사진)이 지명됐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커졌던 ‘탈원전’ 회귀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결정된 데 이어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도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마케팅부문장 사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에너지 및 산업



전략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형모듈 원전(SMR) 등 미래 신사업을 이끌 책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회사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이끌었고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원전 마케팅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지난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4000억코루나(한화 약 26조원)가 투입되는 신규 원전 2기

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원전 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다만 김 사장의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움츠렸던 원전 업계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업계에선 김 후보자를 민관을 아우르는 에너지 전문가로 평가하며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원전 사업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이를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7486억원, 영업이익은 1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4.9% 감소했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대형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풀린다. 다만 2분기부터는 원자력·가스터빈 등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미국의 대형 원전 착공 계획과 SMR 발주가 현실화될 경우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관련 업계의 중장

기 수주 확대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할 경우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수주 파이프라인에 해당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 8기 중 6기에 주기를 공급한 경험을 감안하면 미국의 신규 발주가 본격화될 경우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관계자는 “김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일이며 회사 측에서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원·달러 환율 1350원… 원화값 8개월만에 ‘최고치’

트럼프 ‘파월 때리기’에 달러 급락
파월 의장 조기 해임 가능성 커져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50.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7.4원(0.55%) 하락(원화가치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다.

최근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이어,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차기 연준 의장은 임기를 3~4개월 앞두고 지명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파월 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부터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물가·고용시장 등의 안정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25일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국채 이자로 9000억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 단지 그(파월 의장)가 기준 금리를 낮추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만 더러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파월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세인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만큼 달러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그룹의 티에리 위즈먼 글로벌 외환 및 금리 전략가는 “트럼프가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적이고 반공식(Semi-Official)적인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연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설비투자 3개월 연속 감소, 경기 불확실성 ↑

▶▶ 1면 ‘5월 산업생산…’서 계속

또 “완성차 수출은 증가했는데 신생 부품 같은 경우 5월 제품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되다보니, 어느 정도 관세 부과 영향을 받아서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컴퓨터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금속가공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전기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석유정제,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7%로 전월대비 2.1%포인트(p) 떨어졌다.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자도 모두 감소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쪼

드라들었다. 지난 2월 21.3%의 큰 증가율을 나타낸 뒤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0.1%)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6.9%)에서 줄었다. 소매판매는 보험을 기록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판매가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비교해 0.4포인트(p) 낮아졌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전보다 0.1p 내려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상호관세·주한미군 방위비 등 합의 시급

李 대통령, 이달 말 목표로 ‘韓美 정상회담’ 시기 조율 중

성사될 경우 李 대통령 美 방문
美 국무장관 방한해 시기·의제 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달 8일 만료
시한 연장하거나 합의 타결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7월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21~26일)를 목표로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은 8월 이전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를 목표로 미국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AP/뉴시스

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하게 되면,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말 열리게 된

다면 상호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된다. 최근 미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유예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관련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할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까지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나라들과는 협의를 하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예시한을 연장하거나, 내달 8일 전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비 증액 문제도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하면 거의 두배인 120조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연기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의원총회

전당대회까지 ‘송언석 비대위’ 체제 전환

내달 새 당 지도부 결정될 때까지 겸임
비대위원에 박덕흠·조은희·김대식

국민의힘이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8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 원내대표가 의총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내일(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위원장을 맡아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적 당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우리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들도 확정했다. 비대위원에는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재선의 조은희(서울서초구갑) 의원, 조선의 김대식(부산사상구)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비대위원 2명은 원외 인사 중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박천후 뮤지컬 작가, 김원석 감독.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박천후 뮤지컬 작가, 김원석 감독. /뉴시스

與 “무한정 시간 갖고 논의할 사안 아냐”

>> 1면 ‘與 상법개정 결단…’서 계속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나 경영판단·경영권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소피 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었다”며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것은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난 1년 내내 논쟁해 왔고 국민과 소통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 “與 추진안, 과잉규제 우려”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구체적 협상방향 언급은 없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

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저축은행, 3%대 금리로 하반기 대출 드라이브

정기예금 금리 상단 3.4% 기록
리테일·중기대출 중심 확대 나서
부실채권 정리·대손충당금 환입
중저신용층 겨냥 대출 재개 채비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하반기 영업에 본격 나섰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2.97%다. 이달 초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금리 상단을 살펴보면 0.15%p 상승한 연 3.40%다. 여전히 연 3% 중반대 정기예금을 찾아볼 수 있다.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영업 자금을 유인할 태세다.

저축은행은 올 하반기 영업 기조를 대출 규모 확대에 접목했다. ‘건전성 지표 개선’과 ‘수익성 확대’ 등 두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다. 리테일(소매금융)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규모를 키워 전반적인 연체채권비율을 낮추고 이자수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2년 기준금리 인상기 이후 움크렸던 저축은행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지난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9%로 집계됐다.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해당 시기 연체채권이 늘어난 것이 아닌 대출취급액이 감소한 영향인 만큼 여신규모를 확대해 연체 관련 지표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올 1분기 전국 저축은행은 44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2년 만에 흑자인 만큼 수익성도 회복하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인ancing(PF)발NPL(연체채권)을 처리했다. 올 상반기에만 공동펀드를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털었다. 일각에선 건전성을 높이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저축은행도 주담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파트와 주택 등을 담보로 사업비를 내주는 사업자금대출이 주를 이룬다. 은행권과 같은 성격의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 상품도 존재하지만 차주의 조건이 같더라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5%p 이상 높은 만큼 수요가 미미하다

는 설명이다.

하반기에는 신용점수가 낮은 직장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일으킬 전망이다. 확산 조짐은 불투명하지만 온투업체와의 연계 투자 등 사업경로도 다채로워졌다. 향후 주부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무서류 소액 신용대출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적합한 대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중저신용차주대상 리테일 감소와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했지만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기존의 고객층을 되찾으면서 분위기를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AI 음성 분석 기술로 고객 사칭 피해 차단

삼성생명은 30일 AI 음성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고객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AI 성문일치도 분석’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콜센터 상담 중 동의 받은 고객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보이스피싱범 및 과거 녹취된 성문과 비교해 동일한 여부를 판단한다.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상 통화 등의 2차 인증 절차가 진행돼 고객을 사칭한 금융사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핵심 기술은 삼성생명이 독자 개발한 AI 음성 분석 엔진이다. 엔진은 말투, 억양, 발성 패턴 등 고객 음성의 고유 특징을 정밀 분석해 과거 목소리와 실시간으로 비교한다.

롯데손해보험

월 2000원대 보험료 DRIVE 운전자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월 2000원대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담은 ‘DRIVE 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 항목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가입 금액을 7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원, 교통사고 대인사고 벌금(비탐승중 포함) 3000만원, 대물사고 벌금 500만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등 총 5개 보장을 담았다.

‘가성비 플랜’(13개 보장)에 20개 보장 항목을 추가해 ‘완벽보장 플랜’(총 32개 보장)도 마련했다. 주요 추가 담보로는 창상봉합술 30만원, 보복운전 피해위로금 100만원, 골절전반반(치아과 절제외) 20만원 등으로 구성했다.

교보생명

금리연동형 세제적격 교보e연금저축보험

교보생명은 30일 디지털에 익숙한 2040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교보e연금저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다.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환급률이 세전 100%를 넘어 한 달만 유지해도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6.5%까지 공제된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주형기자 gh471@

분상제 단지, 실속 설계엔 ‘합격점’… 분양가는 ‘글썸’

부동산 현장 르포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중대형 단지, 설계·커뮤니티 호평
분양·대중교통 접근성은 아쉬움

최근 방문한 ‘오퍼스 한강 스위첸’ 건 본주택. 김포 한강변 입지와 중대형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란 희소성 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수요자들은 “설계가 실용적이고 유닛 구성이 괜찮다”는 반응과 함께 “분상제가 적용됐지만 체감할 만큼 저렴하진 않다”는 의견을 함께 내놨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 84·99㎡ 총 1029가구 규모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구성됐다.

단지에는 전 세대에 남향 위주의 배치와 맞통풍 구조가 적용됐고, 알파룸·대면형 주방·분리형 욕실 등 특화 설계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유상옥션을 활용해 알파룸 벽을 철거하면 거실·안



‘오퍼스 한강 스위첸’ 건본주택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방 등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에 맞춘 중대형 평형 구성과 차별화된 설계가 특징”이라며 “거실과 주방, 알파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시설은 물론, 뮤직존·미디어존 등 문화시설과 독서 공간인 ‘스위첸라이브러리’, 주민·키즈카페인 ‘스위첸 라운지’도 조성된다.

개방형 광장인 ‘스위첸 스퀘어’ 등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방문객들은 “단지 내부 평면은 잘 빠졌고 커뮤니티도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교통 여건은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나왔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앞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선이 입주 시점에 개통될지 여부는 미지수고, 현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기자가 시공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버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지분 투자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입지 공고화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재계 6위 ‘Lippo Group(리포그룹)’이 보유한 ‘No bu Bank(노부은행)’ 지분 40%에 투자해 경영권을 포함한 주요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은행업 진출을 목표로 지난해 5월 리포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까지 본격 진출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

게 됐다.

한화생명은 디지털 금융 기술력과 노부은행의 현지 오프라인 영업 전략을 결합한다. 3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리테일 금융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리포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모바일 중심의 금융 플랫폼 고도화, 방카슈랑스 시너지 확대, 현지 특화 상품 개발 등 종합금융 비즈니스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신한銀 창립 43주년 기념 ‘컬처위크’ 행사

2500여명 플로깅·감사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고객과 함께하는 ‘2025 컬처위크(Culture Week)’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달려온 43년, 함께 달리는 동행 Run’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먼저 ‘신한 동행 RUN’은 7월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 약 500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이 43주년을 기념한 4.3km 또는 창립일을 상징하는 (7월7일) 7.7km 구간을 자유롭게 달리고 플로깅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신한 동행 RUN’ 참가

비와 은행 출연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창립기념 신상품 출시 및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43년간 함께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유럽 온수기시장 1위 ‘OSO’ 인수 LG전자, HVAC사업 확장 총력전

〈냉난방공조〉

노르웨이 OSO 지분 100% 인수
히트펌프 냉난방+온수 솔루션
‘패키지형 제품’ B2B 시장 공략

LG전자가 유럽 프리미엄 온수기 시장 1위 기업인 노르웨이 OSO를 인수하며 냉난방공조(HVAC)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고효율 히트펌프와 온수 저장장치를 결합한 패키지형 제품을 앞세워 유럽 B2B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노르웨이의 온수기 전문 기업 OSO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상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르웨이 기업 OSO는 스테인리스 기반의 고효율 온수 저장장치(워터스토리지) 기술을 바탕으로, 히트펌프와 전기보일러용 온수기를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유럽 온수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OSO의 온수 솔루션을 통합한 패키지형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럽 내 HV



올해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냉난방공조 전시회인 ‘ISH 2025’에 참가한 OSO의 부스 전경. /LG전자

AC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글로벌 B2B 사업 전반으로 온수 제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탈탄소 정책 등으로 전기 기반의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RG에 따르면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2024년 약 120만 대에서 2030년 240만 대로 두 배 성장할 전망이다. 히트펌프는 온수 저장 기능이 필수로, 워터스토리지 기술

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전자는 OSO를 통해 글로벌 B2B HVAC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냉난방뿐 아니라 전기 온수기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인수 이후에도 OSO는 기존 브랜드와 조직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OEM 공급처와의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씨저드 브라텐 OSO 소유주는 “LG전자의 차별화된 고효율 히트펌프와 OSO의 혁신적인 워터스토리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고품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OSO의 온수 솔루션은 LG전자 HVAC 사업 도약에 핵심적 촉매”라며 “양사 노하우를 융합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은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기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누레틴 파수 테르산 조선소 대표(왼쪽),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가 지난 2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선박 건조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

LS마린솔루션, HVDC 전력망 구축 나서

튀르키예 테르산 조선소와 본계약

LS마린솔루션이 튀르키예 조선소와 협력해 HVDC(초고압직류송전)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LS마린솔루션은 튀르키예의 테르산 조선소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마린솔루션은 케이블 적재 중량 1만3000톤, 총 중량 1만8800톤의 초대형 HVDC 포설선 건조에 착수한다.

해당 선박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HVD C 해저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고사양 장비를 탑재한다.

특히 장거리·대수심 해역에서도 접속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

계돼 HVDC 전력망 구축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갖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사양을 갖춘 선박은 단 3척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LS마린솔루션이 유일하게 관련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LS마린솔루션은 신규 포설선을 앞세워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내 전략사업은 물론, 유럽·북미 해상풍력 및 초장거리 해저망 구축 수요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선박은 약 2년간의 건조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LS그린링크 해저케이블 공장 과 연계해 설계·생산·시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턴키 수주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직접추출 실증

호주 앤슬리소시즈와 MOU 체결
DLE 실증 데모플랜트 구축·운영
리튬 자원 공급망 구축·확대 속도

포스코홀딩스가 북미 리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북미 현지에서 ‘리튬직접추출(DLE) 기술’ 실증 사업에 나선다.

포스코홀딩스는 30일 호주 자원 개발 기업인 앤슬리소시즈와 DLE 기술 실증을 위한 데모플랜트 구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시티 내 앤슬리소시즈가 염수 리튬 광권을 보유한 부지에 데모플랜트를 건설하고 DLE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DLE 데모플랜트 투자 추진은 리튬 자원 추가 확보 및 미래 기술 경쟁

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 전략의 일환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코어+뉴 엔진(2 Core + New Engine)’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이차전지소재 사업 중에서도 특히 리튬 자원 공급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 데모플랜트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2016년부터 독자 개발해온 DLE 기술의 상용화를 완성하고, 이를 북미 지역 미개발 리튬 염호 투자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착공에 들어갈 DLE 데모플랜트는 포스코그룹 북미 지역 리튬 사업 확장에 필요한 미래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은 폰드를 활용한 ‘자연증발법’이

다. 그러나 자연증발법은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만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DLE 기술은 대규모 증발pond 없이도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 경제성 있게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 공법으로, 북미 지역에서 리튬 자원을 개발하고 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DLE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글로벌 리튬 기업들은 저농도의 염수 리튬 자원 개발을 위해 DLE 기술 확보 및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앤슬리소시즈는 리튬 원료와 부지를 제공하며 포스코홀딩스는 DLE 기술의 사업성 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양사는 실증 결과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추가 협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하이엠솔루텍, TMS 고객계정 9000건 돌파

5월 9104건… 전년 대비 19% 증가
시스템에어컨 운전데이터 실시간 점검

LG전자의 공조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어컨 온라인 유지보수 서비스 ‘TMS’의 고객 계정 수가 처음으로 9000건을 넘어섰다.

하이엠솔루텍은 지난 5월 기준 TMS 연결 계정 수가 9104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3년 5월 6077건 ▲2024년 5월 7647건 ▲2025년 5월 9104건으로 꾸준한 성장세다.

TMS는 LG전자의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LG 비콘클라우드’를 기반으

로 시스템에어컨의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고장을 예방하거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평균적으로 건물 한 곳당 한 계정으로 운영된다.

하이엠솔루텍 측은 이용 증가 배경으로 ‘운영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꼽았다. 하이엠솔루텍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로드 컨트롤’은 기존처럼 에어컨을 켜다 끄는 방식이 아니라, 실내 온도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소비만 줄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성수기(6~8월) 이 서비스를 도입한 고객은 평균 10%의 전력 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혜민 기자

LG전자, 탄소감축 2030년 목표에 ‘바짝’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배출량 91만t, 목표치 87.8만t 근접

LG전자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실적에서 2030년 목표에 바짝 다가섰다.

LG전자는 30일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친환경 경영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91만톤(t)으로, 2030년 목표치인 87만8000톤에 근접한 수치다.

LG전자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4.6%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고효율 설비 도입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국내의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Scope1) 온실가스와 간접(Scope2) 온실가스는 총 91만톤으로, 2030년 배출량 목표치인 87만8000톤에 근접한 수치다.

제품 사용단계(Scope3)에서도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코어기술 등 고효율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 지난해 7대 주요 제품의 사용단계 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9.4% 줄였다. 이는 2030년까지 20% 감축 목표에 거의 도달한 수치다. /이혜민 기자

‘비스포크 AI 콤보’ 글로벌 최고 보안등급

SAMSUNG

삼성전자 ‘UL 솔루션즈’ IoT 보안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다이아몬드’ 획득

삼성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2년 연속 글로벌 최고 보안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가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획득했다고 30일 밝

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UL 솔루션즈는 스마트 가전의 보안 수준을 3개 항목으로 평가해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등 5단계로 구분한다. 다이아몬드 등급은 악성 소프트웨어 탐지, 불법 접근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모든 항목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최대 건조 용량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음성비서 ‘빅스비’와 터치스크린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삼성의 독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보안 플랫폼 ‘녹스(Knox)’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혜민 기자

‘젤스페이스’ 소재 특하… 글로벌 명품침대 브랜드 정면대결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강 헌 구 렉스필 대표

강 대표, ‘가장 편안한 침대’ 도전
수 년간 연구 끝에 젤스페이스 개발
국내 주요 호텔·리조트에 제품 납품

경기 양주 만송동에 위치한 렉스필 본사가 있는 1층 매장은 3억5000만원 짜리 침대가 있다. 제품명이 ‘알렉산더 프리미엄 시그니처’다. 눈을 찔고봐도 가격은 그대로다. 프레임까지 포함한 것으로 국내에선 최고가다.

렉스필이 선보인 고가 침대는 세계 4대 명품 침대브랜드인 스웨덴의 해스텐스, 텍시야나 그리고 영국 바이스프링, 히프 노스가 경쟁상대다. 해스텐스는 12억원 짜리 침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숙면을 돕는데 침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명품 침대를 반드시 만들어보아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핵심 소재는 실리콘과 유사한 ‘젤스페이스’다.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와 수 년간 연구 끝에 소재를 개발하고 특



강헌구 렉스필 대표가 경기 양주에 있는 본사 매장에서 침대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허도 냈다.

젤스페이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에 가장 적합한 경도와 성분으로 이뤄져있다. 압점이 ‘제로(O)’여서 어떤 방향으로 누워도 배기질 않는다. 게다가 숙면을 위해 체온도 빠르게 분산시켜 자는 시간에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준다. 통기성도 좋다. 특히받은 우리만의 레이어링(Layering) 기술도 적용했다. 현존하는 침대 중 가장 허리에 좋은 침대, 편안한 침대라고 자부한다.

특히 젤스페이스는 25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매장 2층에 있는 본사 사장실에서 강헌구 대표가 자신을 ‘수면관리사’라고 소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프레임과 침대에 쓰인 가죽은 명품백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태리 F펠라미의 최상급 소가죽이다. 침대 하나에 명품백이 20~30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웃음). 반짝이는 것들은 체코산 인조다이아몬드들이다. 프레임

에 이름도 새길 수 있다. 모두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하면 약 10주 후에 제품을 받으실 수 있다.”

렉스필은 얼마전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소위 ‘강남부자’들을 추가 공략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피부과, 줄기세포병원, 고가 산후조리원과도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후원하는 KPGA, KLPGA 골프선수만 27명에 달한다. ‘명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향후엔 연예인 마케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렉스필이 만드는 침대가 1억원이 넘는 고가 라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300만원, 600만원대 제품도 있다.

강대표는 렉스필의 전신인 에이스사를 1997년 창업했다.

“다녔던 회사가 IMF로 문을 닫았다. 회사에 남은 양모이불을 퇴직금으로 대신 받았다. 그것들을 시장과 지인들에게 팔고다녔다. 다시 회사에 들어갈지, 창업을 할지 고민하다 아예 집에서 창업을 했다. 그러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의 5층 옥탑방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겨울에 키보드를 두

드리다 손이 시려워 녹이던 석유스토브가 바로 이것이다.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위해서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제 사장실 한쪽엔 골동품처럼 보이는 스토브가 유물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은 점점 변창해 회사는 국내의 내노라하는 호텔, 리조트에 매트리스, 침구류와 린넨류 등을 납품했다. 신라호텔, 그랜드 워커힐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소노호텔 앤 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등이 모두 렉스필의 고객들이다.

국내 유명 침대 브랜드에 침구류도 공급했다. 2020년엔 매트리스 연구를 위해 ‘수면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지금의 렉스필로는 2022년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아몰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엔 원단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패션 향균 마스크를 만들어 난국을 헤쳐나가기도 했다. 덕분에 직원들을 한명도 내보내지 않고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1억원 넘는 침대를 어떻게 팔까 공급해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가 내 신조다.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길이 꼭 있더라.”

/양주(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중기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단기운영자금대출 年 4%~8.69%
중기·소상공인 금융활용 여건 개선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내린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69%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각각 낮아진다. 내수부진 등으로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0%p 인하여 5.20%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이자율의 1~2%p를 지원하는 지자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제부금(3년~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조정 시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

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지난해 1년 동안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 중소기업 상생경영 성과 ‘혁혁’

동반성장지원단, 현장중심 과제 수행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곧 대한민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경영이념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포스코는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반성장지원단’,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공정을 지능화하는 ‘Smart화 역량강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이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MES시스템이 적용된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생산설비를 제어하는 모습 /포스코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이다.

지원단은 ▲ESG 현안 해결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등 총 4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간 100여개사가 참여해 개선 과제를 수행했으며, 점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엔젤투자협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조민식 회장 “국가 경제발전 기여”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내달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엔젤협회가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엔젤협회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개인투자조합 등록과 투자확인서 발급, 지역 엔젤투자허브 조성 등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주요 업무가 정부 위탁사업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공직유관단체 지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지정을 신청 및 확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엔젤협회는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사진)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병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과제 공모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과 혁

신사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국내 규제 여건이나 인프라 한계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에서 기술준비수준(TRL)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실증 종료 후 바로 시장에 출시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LG HelloVision

Hello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 등 성과… 글로벌 AX시장 선두 자리매김

〈인공지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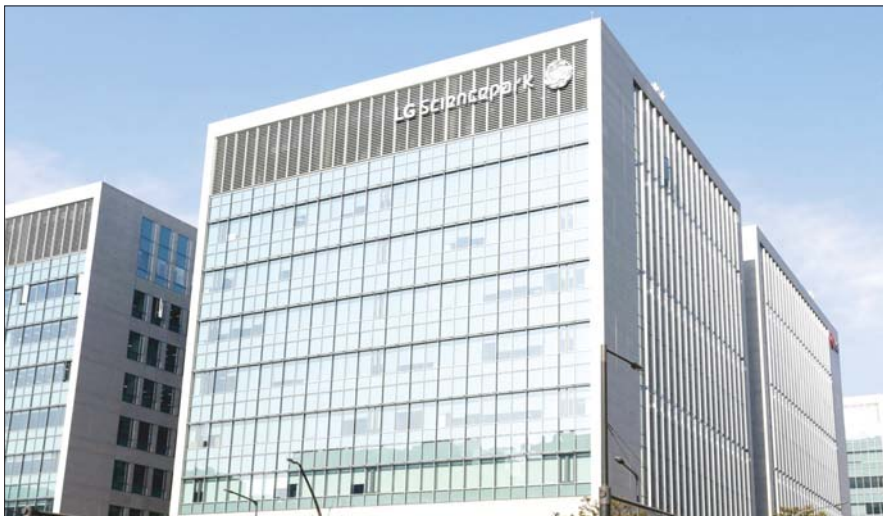
ITS 기업 상반기 결산

② LG CNS

LG CNS는 올해 상반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기술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인공지능 전환(AI)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LG CNS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2114억원, 영업이익 789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AI·클라우드 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59%를 차지하며 주력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 AI 데이터센터 사업, 보안과 기술력으로 시장 선점

30일 LG CNS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성장의 핵심 축 중 하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이다. LG CNS는 지난 23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죽전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하며 주목받았다. 코로케이션은 고객의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비스다. LG CNS는 오는 2033년 5월까지 네이버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죽전 데이터센터에 수용할 예정



LG CNS가 올 상반기 AI·데이터센터·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AX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 CNS

네이버클라우드 코로케이션 ‘맞손’ 데이터센터 기술력 DBO 모델 성과

공공기관 AI 최대규모 사업 수주 로봇기술·ERP 등 해외시장 공략 주요대학과 AX 인재양성 나서

이다.

LG CNS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단순 공간 임대가 아니라 LG CNS의 데이터센터 기술력이 집약된 DBO(설계·건축·운영) 모델 성과”라고 말했다.

이날 공시에서 LG CNS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인 ‘매출 대비 2.5% 이상 계약’으로 인해 사명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고객사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작년 매출액이 5조9826억원임을 감안하면 계약 금액은 최소 149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LG CNS는 죽전 외에도 부산, 상암, 가산 등 국내 거점과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사업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현재 회사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를 위한

액집냉각·디지털트윈 등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진출을 준비 중이다.

◆ 공공·금융·제조 전방위 AI 혁신 주도

LG CNS는 공공 AI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회사는 올 6월 경기도교육청의 약 380억원 규모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AI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 5월 수주한 외교부 AI 플랫폼 사업(300억원 규모)에 이은 대형 성과다.

이번 경기교육청 사업을 통해 LG CNS는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 업무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원 업무를 돕는 ‘AI 행정비서’와 학생·학부모를 위한 ‘AI 소통 도우미’ 등을 구축해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챗GPT 기반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NH농협은행에는 자체 플랫폼 ‘딥 젠(DAP Gen) AI’를 적용한

AI 솔루션을 공급했다.

제조 현장에서는 S-OIL과 협력해 공정 안전 관리 통합 시스템과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며 산업 지능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로봇·ERP·인재 양성으로 미래 사업 기반 구축

미래 성장 엔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LG CNS는 미국 로봇기업 스킨드 AI와 손잡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기로 했다.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는 ‘3D 모바일 셔플’ 로봇을 개발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함께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와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클라우드 ERP(기업자원관리)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며, 인도 딜리버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LG CNS는 카이스트,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손잡고 AX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력 풀을 확장하고 있다. LG CNS는 글로벌 매출 비중 확대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hjk1@metroseoul.co.kr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중심 오프라인 소통 본격화

미디어아트 전시·쇼케이스 등 문화기반 소통 접점 확장 전략 하반기 ‘디어프렌즈 페스타’ 예정

스마일게이트가 ‘로스트아크’를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전시, 모바일 쇼케이스, 유저 축제 등 오프라인 소통 전략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본업인 게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접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게임플랫폼 위주 구조 속에서도 이용자 외소통하고 체험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경험이 팬덤 충성도와 브랜드 지속성의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는 판단에서다.



빛의 여정: 로스트아크 미디어아트전 전경. /최빛나 기자

특히 대표작 ‘로스트아크’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 신규 플랫폼 공개, 팬 축제 개최 등의 행보는 단발성 마케팅이 아닌 중장기 성과를 겨냥한 전

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3일 개막한 ‘빛의 여정: 로스트아크 미디어아트전’

이다. 서울 광진구 위커했 호텔 내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 중인 이번 전시는 스마일게이트가 ‘로스트아크’ 론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로, 자사 대표 IP의 세계관을 예술 콘텐츠로 확장한 시도다.

이보다 앞선 18일부터는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가 열렸다. 스마일게이트가 직접 개발 중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유저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온라인 쇼케이스와 함께 오프라인 체험존이 동시에 운영됐다.

스마일게이트가 오프라인 행사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말 열린 ‘버닝비버 2024’부터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이 창작문화 축제에서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은 청소년·청년 창작자를 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유저 기반이 아닌 문화 기반 소통 접점을 확장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

상업적 홍보보다는 창작 생태계 지원을 강조한 참여였지만, 이후 이어진 ‘로스트아크’ 중심의 콘텐츠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현장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하반기에도 유저 참여형 오프라인 행사인 ‘디어프렌즈 페스타’를 준비 중이다. 서브컬처 기반의 대형 페스티벌로 기획된 이 행사에서는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굿즈마켓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유저 커뮤니티와의 실질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대표 오프라인 브랜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에이닷에 신규 AI 서비스 2종 선택

노트, 음성 받아쓰고 요약·정리 브리핑, 일상 분석해 정보 제공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에 ‘노트’와 ‘브리핑’ 등 신규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노트와 브리핑은 고객들이 생활속에서 자주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SK텔레콤은 향후 정식 출시되면 고객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개인 AI 이용 경험도 극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닷 노트는 음성으로 이뤄지는 모든 순간을 AI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회의나 강의, 상담 등 일상에서의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요약하고 정리해준다.

서비스에 적용된 AI기술은 단순히 음성을 인식해 받아쓰는 것이 아닌 문맥에 맞춰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보정하거나 문서의 형태로도 만드는 등 기존 대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낯선 용어가 나올 경우 별도의 앱이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AI를 통한 웹검색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에이닷 노트는 녹음 종료 후 ▲요점 정리 ▲회의록 ▲강의 노트 가운데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해당 형식에 맞춰 중요한 키워드와 주제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묶어 정리해 준다.

SK텔레콤은 에이닷 노트 서비스를 에이닷 앱과 PC 웹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활용 편의를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픈 베타 형태로 제공되는 노트는 1회 녹음 당 최대 100분, 월 600분 분량이 제공된다.

에이닷 브리핑은 사용자의 일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앰비언트(Ambient) 에이전트’ 서비스다. AI 개인 비서라는 에이닷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브리핑 서비스는 원하는 고객에 한해 직접 요청 없이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하루를 시작할 때 브리핑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해진 일정에 따른 동선별 날씨나 관심사 기반의 콘텐츠를 추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KT, ‘시맨틱 통신’으로 6G 핵심기술 개발

노키아 벨연구소와 ‘맞손’

KT는 시맨틱 통신(의미 전달 통신) 연구 개발을 통해 6G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맨틱 통신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가 지닌 의미나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 정보만 추출해 전달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시맨틱 통신은 AI가 통신 과정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KT는 영상·음성 통신 분야에 시맨틱 기술 내부 실증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기존 대비 현저히 낮은 데이터 전송량으로도 사용자 체감

품질 저하 없이 원본 의미를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KT는 시맨틱 통신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네트워크 혼잡 구간이나 대역이 제한된 위성 통신에서도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자체 연구뿐 아니라 기술 개발·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통신 기술 연구기관 노키아 벨연구소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연초 6G 시맨틱 통신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미국 벨연구소 본사에서 6G&시맨틱 통신 기술 워크숍도 개최, 양사 기술 비전과 로드맵을 공유했다.

/김서현 기자

상반기 AI·원전株 급상승… 코스피 시총 순위 ‘앞치락뒤치락’

시총 5위였던 현대차, 5월 9위로 네이버·KB금융·두산에너지빌리티 등 당분간 5~10위 종목 경쟁 지속될 듯 코스피, 주도업종 부재 ‘장세 고요’

상반기 ‘불장’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의 순위권 경쟁이 치열하다. 연초부터 5위 자리를 지켜오던 현대차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두산에너지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등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반면, 코스닥은 뚜렷한 주도업종이 부재한 채로 ‘상승 랠리’에 절반만 탑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초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5위를 유지하던 현대차의 시총 순위는 이달 들어 9위권까지 밀려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AI와 원전·방산 업종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반기를 주도했던 만큼, 시총 상위권을 뚫고 올라온 것이다. ‘불장’과 함께 코스피 시총 5위권을 두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15.76포인트(0.52%) 오른 3071.7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고 상장사들이 앞치락뒤치락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스피 시총 5위는 연초부터 5월 초까지 현대차가 유구하게 지켜왔던 자리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코스피 5위부터 10위 종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23일부터 25일까지는 네이버가 시총 5위를 유지했으나, 26일에는 현대차, 27일에는 KB금융으로 계속 변동됐다. 30일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3.95% 급등하면서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테마들이 상반기 증시를 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인 원전 활성화 기조에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올해 들어서만 27일까지 274.93% 폭등했으며, 방산 수요 기대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72.59% 급상승하면서 한때 시총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각각 연초 시총 36위, 23위에서 훌쩍 뛰어오른 것이다. 게다가 AI 육성 공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기대감을 등에 업고 있는 네이버, 증시 부양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KB금융까지 참전해 있는 만큼 당분간 시총 5위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원전 및 SMR 주기기 공급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경기 회복과 정부의 AI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평가하며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고요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2차전지와 바이오 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30일까지 코스피는 13.84%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5.57% 상승에 그쳤다.

중심이 없는 만큼 코스닥은 악재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증시가 흔들렸던 지난 13일에도 코스피는 0.87% 하락에 그쳤지만, 코스닥은 2.61% 떨어지면서 크게 무너졌다. 중동발 악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집중 매도한 탓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업종을 보면 방산, 기계, 금융지주 등이 있는데, 그에 반해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의 분야가 부진하다 보니 시장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부진했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산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산업 관련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 기업들도 보다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전년비 2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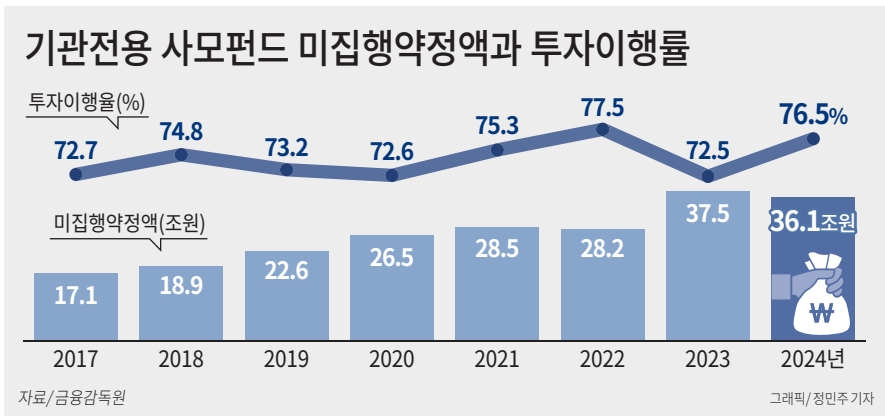
금감원, 지난해 투자 집행액 24.1조 국내 21.4조 25%, 해외 2.7조 33%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신규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은 대형 운용사(GP)에 집중되며 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 집행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32조5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25.8%) 줄었다. 국내 투자액은 21조4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24.9%) 감소했고, 해외 투자액도 2조7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32.5%) 줄었다.

이 기간 투자 대상 기업 수는 431곳으로, 전년(594곳)보다 163곳 줄었다. 건당 평균 투자금액도 5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원 감소했다.

추가 투자 여력을 뜻하는 미집행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은 지난해 말 기준 3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



억원 줄어들며 소폭 감소했다. 투자 분야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폐기물 처리업 등에 집중됐다. 특히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에 대한 투자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 급증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투자 위축과 달리 외형상 성장은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로 전년보다 11개 늘었고,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으로 12.6%, 실제 집행된 이행액은 117조5000억원으로 18.8% 각각 증가했다.

펀드 운용사(GP) 수도 437개사로 전년 대비 15곳 늘었다. 출자 약정액 기준으로 보면 1조원 이상 대형 GP는 40개

사(9.2%)였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 자금 비중은 전체의 66.2%로 전년(64.6%)보다 확대됐다. 반면 1000억원 미만의 소형 GP는 242개사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지만 자금 비중은 감소했다.

신설 펀드 173개 중 대형 펀드는 9개로 전년(13개)보다 줄었지만, 중형(44개), 소형(120개) 펀드는 늘어나며 중소형 GP 중심의 신규 진입은 이어졌다. 펀드 유형별로는 특정 대상을 정해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가 113개(65.3%), 블라인드 펀드가 60개(34.7%)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한조선, 5000억 규모 IPO 공모 진행

이달 삼양컴텍 등 10여개 기업 청약

중형 조선사대한조선이 5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공모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대한조선이 하반기 IPO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대한조선, 에이유브랜즈, 삼양컴텍, 지투지바이오, 아우토크립트, 아이티켄 등 10여개 기업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대한조선은 오는 7월 22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관련주가 IPO 시장에 등판한 것은 16년 전인 2009년 삼강엔앤티(현 SK오션플랜트)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다시 뚜렷해진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다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IPO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단기 매도 제한)을 건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만약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를 줄이고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공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증권 ‘책무 이행 결의대회’ 개최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의지 표명

현대차증권은 지난 27일 책무 이행 결의를 다지는 ‘책무 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임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현대차증권의 강한 의지를 전사적으로 표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을 비롯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에 기반해 실질적인 책무를 부여받은 주요 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단순 준법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현대차증권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현대차증권 본사에서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오른쪽)과 이후술 준법감시인 사무가 결의서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무 이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강화했다. 특히 각 임원의 책무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교환사채 발행’ 태광산업, 주가 급락

자사주 소각의무 회피 ‘꼼수’ 비판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전 거래일보다 11.24% 하락한 97만 9000원에 마감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비율은 발행 주식의 24.41%다. 태광산업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신사업 추진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EB 발행이 이를 피하려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도 강하게 반발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주주 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차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관희 기자

미국 관세에 3분기 수출경기 위축 가전·자동차 ‘부진’, 반도체 ‘호조’

무협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EBSI 96.3, 3분기 연속 기준치하회
15품목 중 10개 수출여건 악화 전망
반도체·선박 등 회복세 이어질 듯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3분기 국내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철강 파생제품 추가 관세 영향을 받은 가전을 비롯해 자동차 수출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와 조선의 경우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서 3분기 EBSI가 96.3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수출기업의 체감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전 분기 대비 개선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EBSI는 3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기준치 아래를 기록해 체감경기 위축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분야는 가전이다. 가전의 EBSI는 52.7로, 지난 1분기(52.7), 2분기(54.0)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전을 철강 파생 상품에 포함시켜 50%의 합량관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87억 달러, 수입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8.3%(29억7000만 달러), 수입 5.3%(18억10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연간 누계는 213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 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다.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EU의 경기 둔화도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역시 EBSI가 56.0에 그치며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존부터 관세 대상 품목이던 자동차 산업 역시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반도체와 선박 수출경기는 개선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EBSI는 147.1로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가장 높았다.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3분기 D램 가격 상승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중심의 수출 증가세도 지속되며 선박 EBSI도 135.5를 기록했다.

항목별 전망에서도 국제물류(86.8), 수출대상국 경기(87.3), 수입국

제·통상마찰(67.1) 등 대부분이 기준치를 하회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타겟관세 부과 우려가 확대된 상황이다.

수출 기업이 꼽은 애로 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15.0%)’, ‘환율 변동성(14.7%)’, ‘원재료 가격 상승(14.2%)’이 상위권에 올랐다. 여기에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12.7%)’도 주요 부담으로 지목됐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수출 체감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전력 품목인 반도체도 예외는 아닌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시장 다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하면 ‘지원금’

고용부, 월 1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신한금융, 50인 미만 기업 추가 지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첫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7월1일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첫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지원금을 처음 받는 업체는 경남 양산시 소재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

원 대상이 됐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 ‘변호사 무료 상담’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달~11월 진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 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

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 6000명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10조 규모 성장

공정위,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시장 규모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해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공정위 공개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 가입자 수는 96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원이다.

이는 가입자는 전년 대비 68만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업체에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와 시장감시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2026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및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개별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K-라이스벨트 지원대상국 확대 가능성”

농어촌공사, 농업 기반 확장 주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사는 이 사업이 기아 문제 해소에 더해 한국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국가에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사가 농업 쪽의 여러 ODA 사업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라이스벨트 사업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가 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자 보급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정비도 같이 추진해,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는 한국농업 우수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농어촌공사

다”고 했다. 또 “다만 아직 대상국 수를 늘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국 확대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년농업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 지원사업 하고 있다. 또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을 지어서 청년농들에게 임대해 지어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청년농 없이 농업이 못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환경·외교부,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환경부와 외교부가 다음 달 1~3일(현지시간) 사흘간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사절단은 외교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회의 물산업 기업 10개사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다. 이번 사절단은 물 분야에서 민관협력 형식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문제 해결 지원에 나선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라쿰운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수자원 분쟁, 세계적으로 높은

1인당 물 사용량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이 있다.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물산업 수요가 높은 국가다.

이에 설계, 건설, 수처리 등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카라쿰 운하의 수질·수량 통합 측정(모니터링) 및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을 제안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7월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협력 학술회’를 열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수·하수처리 기술, 물에너지 융합 솔루션 등 국내 물기술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www.dseshop.co.kr


동성제약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
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경남도민 10명 중 7명 “민선 8기, 도정 운영 잘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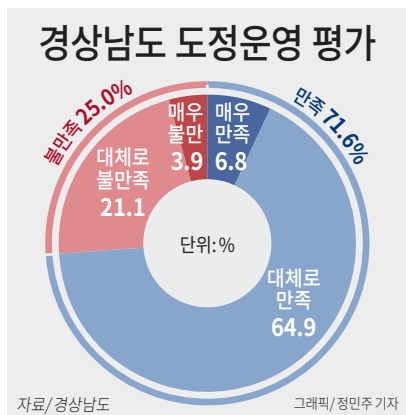
경남도, 도정 성과 인식조사
생활 여건 만족도 67% 기록
‘우주항공청 유치’ 높은 평가

민선 8기 경남도정이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 71.6%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민선
8기 3주년 도정 성과 평가 도민인식조
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 71.6%가 도
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정 운영 평가 이래 최고치
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4.7%p 상승했
으며 부정 평가는 6.3%p 감소했다.

전반적인 생활 여건 만족도도
67.1%에 달했다. 두 항목 모두 모든



연령, 지역에서 60% 후반대 긍정 응
답을 기록해 부정 평가를 크게 웃돌
았다. 경남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
낀다는 응답도 65.8%로 높게 나타
났다.

생활 여건 만족 요인으로는 주거·
도시 환경(25.2%)과 보건·복지 및 의
료 서비스(19.4%)가 주요하게 꼽혔

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43.6%), 교통·주차
문제(13.1%), 문화·여가시설 부족
(9.3%) 등이 지적됐다.

분야별 주요 성과 인식에서는 경
제·산업 분야에서 우주항공청 경남
유치(36.7%)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이어 조선·원전·방산 등 주력 산
업 성장(22%), 역대 최고 고용률 달
성(10.9%),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
확정(7.4%), 3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7.1%), 농가소득 증가율 역대
최대(4.6%), 투자 유치 3년 연속 역
대 최대 실적 갱신(4.6%) 등이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마창대교·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23.7%)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수서

행 SRT 신규 운행 및 KTX 증편
(19.9%), 창원 석동터널 개통 등 도로
망 구축 사업(19.1%), ‘경남패스’ 도
입 및 가입자 21만명 달성(19.1%) 등
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복지·인구·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24.1%)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돌봄 지원 강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13.8%), 소방·병원 연계 응급헬
기 도입(12.6%), 가야고분군 세계유
산 등재(10.8%) 등의 성과도 주목받
았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남도
민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와 통신 3사 타기팅 조사를 병행해 진
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에서 ±3.1%p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안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14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총 발행액은 1900억 원으로 확
대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권은 지류형 582억 원, 모바일형 1,
358억 원으로 구성되며, 매일 약 7만여 명의
시민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기
존 20만 원이던 구매 한도는 지류형 30만 원,
모바일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부산시 스타소상공인’ 선정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2025년 부산
시 스타소상공인’ 10개 사를 선정했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 10개 사를 선정해 ‘부산 대표 브랜
드’로 성장하도록 종합 지원해왔으며 이번
까지 포함해 총 40개 사를 발굴했다.

선정된 스타소상공인은 ▲그린리본 ▲농
업회사법인 리큐랩 ▲댄스팜코퍼레이션 ▲
더블헬스케어 ▲바비조아 ▲부산약콩밀면
▲양가손만두 ▲차에전 할매갈국수 ▲코스
마일 코퍼레이션 ▲태리제화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교류회와 협업 프로젝트 실행 자금을 지원한
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천시, 귀농인 수 전국 1위

경북 영천시가 2024년 통계청 귀농통계에
서 전국 시·군 가운데 귀농인 수 1위를 차지
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시·군별 귀농인 규모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올해 영천에는 총 140명
의 귀농인이 새롭게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국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만의 맞춤형 정
책이 실제 정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
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달성군

러시아어 ‘생활정보지’ 발간

달성군은 관내 거주 고려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어로 제작한 ‘생활정보지’를 발간·배
포했다.

이번 생활정보지는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
아어권 주민들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됐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생활
관련 정보, 체류 안내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정보지는 고려인 밀집 지역과 관련 기관
에 총 800부가 배포됐으며, 달성군청 홈페이지
에서도 전자과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대구=김준한 기자

경북도, 양자 사업 224억 투입

정부 글로벌파트너십 공모사업 선정
국비 223.8억 확보… 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
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23억 8000
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텍, DGIST 등 국
내 대학이 미국 하버드대, MIT, 싱가포르
NU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과 협력해 양자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기술 개발
및 양자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 과제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 및 조절 기술
개발’이다. 이는 초전도, 이온트랩,
중성원자, 광자 등 다양한 양자 기술
플랫폼의 장점을 융합해 강력하고 안
정적인 양자 얽힘을 구현하고,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다. 양자컴
퓨터, 양자통신, 양자암호 등 차세대



경북도청 전경

핵심 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북도와 포항
시, 포스텍은 양자연구 장비 확보, 원
천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연구
자 초빙, 국내외 연구자 파견, 국제 워
크숍 및 학회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세계적인
연구 흐름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쟁력 있는 양자기술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첨단산업의 성
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결성

박형준 시장 “연내 1호 투자기업 배출”

부산시는 총 551억원 규모의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모펀드를 성
공적으로 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부산시가 미래산업 전환
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너
달 만에 이뤄졌다. 5대 시중은행이 출
자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펀드가
500억원, 시가 41억원, 한국산업은행
이 10억원으로 공동 출자했다.

이번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9년간 매년 551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 총 2조3000억원 규모
의 자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자
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조선해양기
자재, 자동차부품
등부산의주력제조
업이 직면한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친환경기술
을 융합한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전환자금을 제공할 예
정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탄소저
감 기술 도입, 미래차 부품 전환 등 현
장 중심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
침이다.

박형준시장(사진)은 “지역 기업의
높은 기대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
업구조 혁신을 선도할 ‘1호 투자기
업’을 연내 배출하고,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지역 산업 전반에 혁신의
물결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민, 지난해 7.8만t 온실가스 감축

광주시, 14억 상당 인센티브 지급

광주시민이 지난해 총 7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
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
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
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특전(인센티
브)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광주
시민이 감소한 온실가스는 30년생 소
나무 약 862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인 총 7만8000t 규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
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
감하거나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
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특전(인센티브)은 현
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금으로 지
급한다.

광주시는 전체 65만여 가구 중
56%에 달하는 37만여 가구가 탄소중
립포인트제(에너지)에 가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해 온
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 가구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 가
구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분야에서
는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특전(인
센티브)을 제공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연중
광주시 누리집과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
으며,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는 매년 2~4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3일 ‘UN GIH S.I.W’ 개막

기후위기 시대 해법 모색

세계 기후 혁신 리더들이 산업도시
포항에 모여, 기후 위기 시대 산업 구
조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도시 단위 기
후 행동의 해법을 모색한다.

포항시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라
한호텔에서 ‘유엔기후변화 글로벌혁신
허브(UN GIH) 시스템혁신워크
숍(Systemic Innovation Worksho
p, S.I.W.)’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혁신 기술 협력을
핵심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적 기후학자와 유엔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연사로는 영국 유니버시티칼
리지 런던(UCL)의 지구시스템과학

교수이자 ‘Climate Change: A Ver
y Short Introduction’의 저자인 마
크 마슬린(Mark Maslin)과, UN GI
H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는 마쌌바
티오예(Massamba Thioye)가 이를
을 올렸다.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기후 정책 전
환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실행 중심의 플랫폼을 마련할 방
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기후과학과 정책, 기술이 하나로 만
나는 장”이라며 “세계적인 기후 혁신
가들과의 교류가 포항의 기후정책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매출 ‘뚝’… 면세점, 체질변화 시급

5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16% ↓
소비패턴 고가→저가중심 변화

신라·롯데, 中 여유그룹과 맞손
3분기 무비자 시행, 고객유치 나서

지난 5월 면세점 소매판매액이 올해 들어 다시 한 번 크게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하반기 면세점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외국인 소비 트렌드마저 명품에서 저가로 옮겨가면서 만성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업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면세점의 지난 5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총금액을 일컫는다.

타 유통업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감소세다. 같은 기간 백화점(+0.6%), 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면세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형마트(-2.0%), 슈퍼마켓·잡화점(-0.7%), 편의점(-0.1%)은 1~2%대 수준에서 증감률을 보인 반면, 면세점만 10%대가 넘는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상반기 월별로 살펴봐도 큰 폭의 하락세다.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면세점 소매판매액 40% 감소하며, 비상계

업에 따른 방한객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후 2월 9.3%, 3월 -8.6%, 4월 -5.2% 증감을 이어오다 5월 -16.1%로 1월 이후 다시 한번 크게 주저앉았다.

국내 면세업계는 이같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면세업체들

과 손을 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라면세점은 이달 중국 면세점 그룹을 운영하는 중국여유그룹과 글로벌 면세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교류 확대에 나섰다. 롯데면세점 역시 같은 달 중국여유그룹 임원진을 만나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특히,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등은 오는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 단체 및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면세점 매출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외국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거론되면서, 단순 방한객 유치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은 고가에서 저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던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제는 올

리브영, 다이소 등을 방문하면서 저가형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하나카드 외국인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올리브영 방문객은 전년 대비 77% 늘었으며, 다이소의 경우 이용자 수가 46%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면세업계 내부에서 근본적인 마케팅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 방한객 수가 면세점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비 트렌드 자체가 변화해 외국인 소비층을 다른 채널로 뺏기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면세점 매출 구조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소매판매액이 1월 이후 상반기 가장 크게 떨어진 지난 5월, 오히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63만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마트, 조각과일 갈변 막고 맛 잡았다

신선도 유지 자체 기술 ‘프레쉬 L’
품질관리팀·과일팀MD 공동개발

롯데마트·슈퍼가 조각 과일 신선도 유지를 위해 ‘프레쉬 L(Fresh L)’ 기술을 자체 개발해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프레쉬 L은 롯데 중앙연구소,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 롯데마트·슈퍼 품질관리팀, 과일팀 상품기획자(MD)가 공동 개발한 신기술이다.

기술 핵심은 사과, 배 등 조각 과일의 갈변 현상을 억제하면서도 원물의 풍미를 유지하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조각 과일의 갈변을 막기 위해, 비타민C 기반 신선도 유지제에 과일을 일정 시간 담근 뒤,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한다. 갈변 방지에는 효과적이거나, 성분 특유의 산미로 원물의 풍미가 저하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막고자 롯데마트·슈퍼는 비타



롯데마트 제티플러스 서울역점 간편과일 매대에서 조각 과일을 구매하는 고객 모습. /롯데마트

민C의 함량을 줄이면서 갈변을 방지하는 최적의 환경을 연구했다. 약 6개월 동안 1000여 회의 표본 테스트를 거쳤으며, 성분 분석 및 오감을 활용한 관능 평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경시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롯데마트·슈퍼 이규원 과일팀 상품

기획자(MD)는 “조각 과일을 찾는 고객이 간편함을 위해 맛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 개발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가장 완벽한 과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이트진로, 英 미식 축제서 큰 인기

‘진로 디스커버리 바’ 1만명 이상 방문

하이트진로가 영국 최대 미식 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런던(Taste of London) 2025’에 참가해 현지 소비자들에 큰 주목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테이스트 오브 런던’은 매년 6월, 런던 중심부 리젠트 파크(Regent’s Park)에서 열리는 영국 최대 규모의 푸드 페스티벌이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런던을 대표하는 레스토랑과 세계 각국의 요리, 미술품 세프의 쿠키쇼, 다양한 주류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단독 부스인 ‘진로 디스커버리 바(JINRO Discovery Bar)’를 운영하며 런던 소비자에게 한국 대표 소주 브랜드의 독창성과 매력력을 선보였다. 과일리큐르와 참이슬을 활용한 시음 체험과 세계적인 바텐더 및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하이트진로, 테이스트 오브 런던 2025 단독 부스 운영 현장.

통해 브랜드 체험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하며 현지인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약 1만여 명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JINRO는 행사장 내 소비자와 주요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새로운 음료 트렌드’로 언급되며, 행사 부스 중 ‘가장 주목받은 신규 부스’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롯데백 ‘스노우구스 바이 캐나다구스’ 공개

한정 기획상품 국내최초 단독공개
대표제품 벨로 파카·엠티 팬츠 등

롯데백화점 본점이 캐나다구스의 ‘스노우구스 바이 캐나다구스’ 한정 기획상품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노우구스 바이 캐나다구스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이더 아커만이 참여해 선보이는 첫 여름 시즌 제품군으로, 전 세계 일부 매장에서만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롯데백화점 본점이 유일하게 단독 판매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이 세계 최초로 남성과 여성 이원화 매장을 구현해, 캐나다구스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라이더 파카를 재해석한 ‘벨로 파카’, 넉넉한 주머니 크기가 특징인 ‘엠티 팬츠’, 독창적인 그래픽이 돋보이는 ‘메사 반팔 티셔츠’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이승원 럭셔리 디자이너 팀장은 “하이더 아커만 캡슐 컬렉션의 본점 단독 유치로 또 한 번 국내 최고의 K 리테일러로 위상을 증명했다”라며 “사계절 럭셔리 웨어 브랜드로 탈바꿈 중인 캐나다구스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캡슐 컬렉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CU-카카오페이 편의점 충전·출금 서비스

편의점 CU가 업계 최초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편의점 현금 충전 및 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CU에 방문한 고객이 카카오페이가코드를 제시하고, 충전할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번에 최대 1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출금 액수는 3만원이다.

충전한 금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실물 카드나 애플리케이션 바코드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현금으로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10대 고객의 간편 결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재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플라스틱 감축 등 성과 공개

‘2024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롯데칠성음료가 2024년의 ESG 경영 성과와 미래 실천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ESG 동향 대응과 추진 성과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분석, ▲플라스틱 감축 이행,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같은 중대 이슈관리 방안 및 성과 등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외부기관의 컨설팅 없이 보고서를 자체 제작해 내부 구성원들의 ESG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기후 변화가 미치는

잠재적 재무 영향과 시나리오를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공개하고 음료, 주류 11개 공장 등 사업장별 위험 및 기회 요소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사적인 위험 관리 통합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또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로부터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줄여 나갈 계획을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전 사업장과 해외 PCPPI(필리핀팩시)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연도별 개선 목표를 수립했다.

/이세경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전기식·화장품으로 사업 다각화 ‘성과’

유한양행 생활건강 사업 키워
오상헬스케어와 파트너십 강화

동국제약 헬스케어 사업 성장세
일반의약품서 생활용품으로 확장

메디톡스 ‘MT961’ 특허등록
체지방 감소 도움… 제품 출시 예정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통적인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활발하게 확장한 데 이어, 이를 새 캐시카우로 정착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생활건강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며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올해 1분기 생활건강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4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생활건강 사업의 활약 덕분에, 최근 3년간 매출은 2023년 1813억원, 2023년 2153억원, 2024년 2406억원 등을 기록했다.

유한양행은 신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지난해 4월에는 기존 ‘생활유통사업부’를 ‘생활건강사업부’로 개칭하는



배우 김남주가 혈당관리 유산균 ‘당큐락’을 소개하고 있다. /유한양행

등 사업 경쟁력을 높였다. 실제로 혈당관리 유산균 ‘당큐락’, 약국용 혈당측정기 ‘유한당체크’ 등 당뇨병 환자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으며 소비자 접점을 대폭 늘렸다.

올해 들어서는 오상헬스케어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오상헬스케어에 당큐락 해외 판매권을 부여하는 등 유한양행은 당큐락을 앞세워 글로벌 진출도 노리고 있다. 당큐락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은 현재 총 8종의 제품군을 이루고 있다. /동국제약

최근 선보인 ‘유한당체크’를 통해서도 오상헬스케어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해당 제품은 체외진단 분야 사업을 영위해 온 오상헬스케어가 개발했고, 유한양행이 판매한다.

동국제약의 헬스케어사업도 전체 실적에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 매출은 7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9%에 달하며 동국제약 사업부 중 가

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은 기존 일반의약품 브랜드를 생활용품 브랜드로 확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상처 관리에 쓰이는 마데카솔에서 피부트리블 브랜드 마데카 메디패치로 제품군을 넓혔다.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은 잇몸건강 브랜드 덴트릭스로 특화됐다. 혈액순환 일반의약품 센시아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의료기기 압박밴드, 압박스타킹 등으로 파생됐다.

특히 더마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는 동국제약의 독자 원료와 기술력을 집약해 차별화한 브랜드다.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의 경우, 2015년 출시 후 지난해 누적매출액 1조 원, 누적 판매량 6800만 개를 돌파했다. 이어 올해 3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7300만 개를 넘기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마데카 크림은 브랜드 핵심 성분인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탄력, 진정, 보습 효과를 모두 갖췄다.

동국제약은 현재 미국 아마존, 일본 쿠팡 글로벌 채널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센텔리안24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메디톡스는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MT961’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올해 4월에는 MT961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메디톡스는 오는 2026년 상반기 ‘MT961’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원료는 전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 30kg/m² 미만의 만 19~70세 성인 남녀 120명에서 12주간 매일 섭취시 몸통, 팔, 다리 등의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감소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 그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키트 등의 특허를 등록하고 숙취해소용 유산균제 ‘칸의 아침’을 선보인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체지방 감소 프로바이오틱스 ‘MT961’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칸의 아침으로 쌓은 노하우로 후속 제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 추가 확보

안동서 백신 생산시설 증축 준공식
PCV21 후보물질 생산기지로 활용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협력 결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세계 폐렴구균 백신 시장 진입을 위한 대규모 상업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7일 경북 안동 백신 생산공장 ‘엘 하우스(LHOUSE)’에서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의 증축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축된 시설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Sanofi)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백신(PCV21) 후보물질 ‘GBP410’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증축을 단순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의 실질적 결실로 보고, 향후 글로벌 출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확장 체결한 차세대 폐렴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오른쪽)과 사노피 토마스 트리옹프 백신 사업 부문 수석 부사장이 지난 27일 경북 안동 백신 생산공장 ‘엘 하우스’에서 열린 폐렴구균 백신 생산시설 준공 기념식에서 핸드프린팅을 진행하고 있다.

구균 백신 개발 프로젝트도 빠르게 전진시킬 계획이다.

사노피 토마스 트리옹프 수석 부사장은 “PCV21 3상 임상 개시에 이어 이번 생산시설 준공은 사노피와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우리는 폐

렴구균 질환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오늘 준공식은 단순히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지난 11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실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사노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원 팀, 원 골(One Team, One Goal)’의 모토 아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축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LHOUSE 내 백신 생산동을 확장, 약 4200m²(1300평) 규모의 신규 공간을 확보했다. 해당 시설은 21가 폐렴구균 백신 후보물질 ‘GBP410’의 생산기지로 활용되며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도 갖출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트러블부터 모공까지 패치로 관리해요”

CJ올리브영 ‘케어플러스’
레티날 모공 마이크로 닷 패치

CJ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 ‘케어플러스’에서 트러블 이후 넓어진 모공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 ‘레티날 모공 마이크로 닷 패치’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케어플러스만의 독자적인 마이크로 닷 기술을 집약해 강력한 유효 성분 흡수력을 갖췄다. 하나의 패치에 약 2500개의 마이크로 닷을 탑

재해 히알루론산 유효 성분을 집중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얼굴 나비존, 코, 미간, 턱 등에 밀착되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적인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해 국소 부위에도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4주 사용 후 모공 부피가 25.51%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레티놀보다 효과는 빠르고 자극은 적은 ‘레티날’ 성분과 피부에 닿자마자 즉시 활성화되는 저자극 ‘레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치약 1회 사용으로 구취 줄인다

2080 ‘덴티리프 구취케어 치약’

애경산업은 구강관리 브랜드 2080에서 ‘덴티리프 구취케어 치약’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구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관리해 1회 사용만으로도 구취 유발 성분인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

을 각각 96.7%, 97.1%씩 줄인다. 또 1450ppm의 고불소 처방이 잇몸질환과 충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균과 류탄스균을 복합 억제한다.

이와 함께 녹차, 유칼립투스, 캐모마일 등 허브 추출물 6종을 함유하고, 리프레시민트향이 더해져 양치 후 개운함도 경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차세대 골대체제 개발 박차

‘BMP-2’ 원료의약품 허가 획득

대웅제약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골 재생을 촉진하는 단백질 ‘BMP-2’ 원료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국내 최초로 단백질 단일성분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기술력, 품질 관리 등에서 역량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BMP-2는 골 생성 유도 단백질로, 골 결손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분화시킨다. 골절이나 디스크 수술 후 골유합 치료에 쓰이는 골대체제 등에 적용되는 소재다. 대웅그룹의 특수관계 기업인 시자바이오가 개발한 ‘노보시스’(사진), ‘노보시스 퍼디’ 등이 해당 단백질로 설계됐다.

노보시스 퍼티의 경우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국산 융복합의



료제품으로는 처음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대웅제약은 BMP-2를 활용해 차세대 골대체제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산 원료와 의료기기 중심의 기존 시장에서 자체 기술로 국산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썬키스트 소다’, 광고 누적 조회수 3000만

광동제약, 공개 2개월 만의 성과

광동제약은 ‘썬키스트 소다’ 신규 광고가 공개 2달 만에 누적 조회수 3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튜브에서 약 1300만 회, 인스타그램에서 약 1700만 회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광고는 ‘캘리포니아 바이브, 초긍정 썬키스트’를 주제로 하며, 분식집, 정류장, 카페, 거실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수 이영지와 코미디언 이은지가 등장해 공간별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이청하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7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촉촉했던 마음이 뽕뽕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김지윤,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자우 | 예매처 티켓링크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NH농협생명,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 실시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당진시 석문농협 관내 석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올해 네 번째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봉사단은 250여명의 농업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처방을 진행했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가운데)가 기립축하를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KT-MS-계명대, 'K-MIND센터' 설립 업무협약

KT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교육·연구 플랫폼 'K-MIND(케이-마인드)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부터) KT AX사업본부장 유서봉 상무, 계명대학교 김범준 산학부총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현경 공공사업부문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영자문위원회 1차 회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영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부터)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BNK금융그룹,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BNK금융그룹은 그룹 내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BNK WIN'S'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출범식은 BNK금융그룹 여성 관리자층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오픈이인 리더 특강은 한국 공학교육 학회장을 역임한 오명숙 한국 여성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이 맡았다.

/BNK금융그룹

대교에듀캠프

경계선지능 아동 교육 지원

대교에듀캠프는 연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년 연속 연천군 산간 지역의 경계선지능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교에듀캠프가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마이페이스' 프로그램과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전문 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습 진단부터 맞춤형 수업, 심리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규석 사장 “대리점 협력 통해 서비스 경쟁력 극대화”

〈현대모비스〉

모비스 '대리점 컨퍼런스'

대리점 대표위원 200여명 참석
자동차 부품시장 동향·비전 공유

현대모비스가 전국 우수 대리점과 고객가치 향상과 브랜드 신뢰도 강화를 모색하는 '2025년 대리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주말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전국 대리점 대표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 주요 동향 및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



현대모비스가 지난달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2025 현대모비스 대리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규석 사장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설명회, 비전 및 성장가치 워크숍, 우수 대리점 시상식 등을 진행했다.

이사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들이 현대차·기아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경쟁

롯데그룹,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진행

롯데홈쇼핑 등 9개 그룹사 참여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인재 확보”

롯데그룹이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은 채용 계획이 있는 롯데 그룹사들의 전형 시작일을 3, 6, 9, 12월에 맞춰 진행하는 채용 방식이다.

이번 6월 채용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홈쇼핑 등 총 9개 그룹사가 참여한다. 채용 직무는 전략 기획·인공지

능(AI)·재무·상품기획(MD)·연구개발(R&D) 등 총 32개 영역이다.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내달 10일과 14일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롯데그룹 채용 설명회인 '잡카페'를 열고 입사 지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롯데그룹의 비전과 사업을 소개하고, 채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8월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잡페어'를 연다. 해외에서 채용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그룹사들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

이다.

한편, 롯데는 2021년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그룹사별 전형 일정을 분기별로 정례화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시 채용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 확보에 힘써 왔다”며 “적극적인 채용 활동과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한 채용 제도를 통해 인재 확보에 힘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케미칼-동반위, ‘ESG 지원사업’ 업무협약

이영준 대표 “상생협력 사업 강화”

롯데케미칼이 협력사 ESG경영을 지원한다.

롯데케미칼은 2019년 동반위의 'CSR 평가지원사업'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한 후 6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선도기업이자 동반위 ESG 지원사업 중 가장 오랫동안 참여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롯데케미칼은 총 12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특히 지난해 지원한 20개 협력사의 ESG 지표 준수율은 기존 평균 52.1%에서 90.8%로 무려 38.7%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0개 협력사가 모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동반위가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협력사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현장 실사 및 개선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ESG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우아한형제들, ‘배민’ 거래액 153조 돌파

누적 주문 65억여건 달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앱 출시 후 지난 15년간 발생한 누적 주문 건수는 65억여건에 이르며, 누적 거래액은 약 153조 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배민은 지난 2010년 6월25일 음식점 전단지를 대체하는 안내 앱으

로 시작했다. 2012년 12월 배민의 월간 주문 건수는 200만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1년 8월에는 처음으로 1억건을 돌파하며 약 9년만에 50배 성장했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의 매출을 의미하는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했다. 2015년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

해 2025년 기준 누적 약 153조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배민 입점을 한번 이상 경험한 외식업주는 누적 120만여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수는 2012년 약 100만명에서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수 기준)이 넘는 사람들이 배민을 통해 30만여개의 가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을 배달로 즐기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력"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전국 어디든 A/S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모비스와 대리점의 협력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로부터 A/S용 순정부품 공급 책임을 위임받아 국내 1200여개 대리점과 해외 157개 국가에 1만1000여 딜러를 운영하고 있다. 부품 공급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대리점을 중요한 고객이자,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반자로 인식,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과 대리점 경영 컨설팅, 비품 및 무상 안전진단 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여경협 ‘여성기업주간’ 돌입

여성기업인을 위한 최대 축제이자 법정 행사인 '제4회 여성기업주간'이 오는 4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30일 여경협에 따르면 올해 여성기업주간 슬로건은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로 정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판로·공공구매 ▲소통·정책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행사 4가지 부문으로 준비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제4회 여성기업주간 행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한국부동산원 ◇지역본부장 보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인천지사장 이남훈 △호남지역본부장 겸 광주지사장 김찬용

◆신한투자증권 ◇신임 부사장 △투자자산관리부 김영백 △PI부 한정근

◆세이프타임즈 △편집국장 직무대리 성창희

부음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조상(건설경제신문사 발행인)·태상(개인사업)씨 모친상 = 30일 오전 7시30분, 칠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이석의·이길의(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이옥의·이수진(이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무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 이기혁·이기현·이기민·이기윤·이수민·황세원·이도건씨 조부상 = 30일 오전 10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 2일, 031-219-4591

고성 오션뷰리조트 특별 회원모집 !!

여름휴가 예약100%.오션뷰 리모델링 완료.
무료숙박권 선착순 50명 지급



강원 '미봉고성오션뷰리조트'

여름휴가 예약보장
오션뷰룸 100% 리모델링
무료숙박권 20매 선착순50명 지급
제주 · 설악 · 해운대 · 나주 · 평창 등
전국 6곳 체인 리조트도 할인가 이용
선착순 마감 후에는 가격 인상

24시간 상담
문의 : 02-541-0113
문자문의 010-3512-7792

강원도 고성군 최북단 민통선 부근에 자리잡은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가 객실 리모델링을 기념해 특별 할인가에 회원을 모집한다.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는 동해안 해안선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객실 내에서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침대에 누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잠들 수 있는 리조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금강산, 통일전망대, 김일성·이승만 별장이 함께 있는 화진포, 설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외도 인접해 있다. 회원들은 국내 유명 관광지인 제주, 설악, 해운대, 나주, 평창 등에 있는 전국 6개 지역의 체인 리조트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한림읍 협재로에 위치한 '제주 미봉리조트'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맑고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주변에는 협재해수욕장, 협재동굴, 한림공원, 금릉해수욕장, 분재예술원, 제주경마공원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특히 제주 미봉리조트는 인근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회원을 포함해 4명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태국,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의 골프장 이용 시에도 자매 골프 전문 여행사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회원권은 방 크기에 따라 두 가지다. 패밀리형인 53㎡는 1,285만원에서 할인된 485만원, 스위트형인 99㎡는 1,995만원에서 할인된 696만원에 판매 중이다. 등기제 분양 방식으로 보증금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회원카드 발급을 비롯해 무료 숙박권, 무료 사우나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인터넷 실시간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여름 성수기 예약 우선권이 있어 휴가철에 이용하면 편리하다. 선착순 100명 특별 혜택으로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내 해수욕 사우나 무료 이용권 20매와 객실 무료 숙박권 15매를 지급한다.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 관계자는 "고성과 제주 리조트 모두 최근 객실 리모델링을 마쳐 룸 컨디션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됐다"면서 "선착순 마감 후에는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금 100만원을 농협 355-0086-9609-33(예금주 주식회사 미봉)으로 입금하면 된다. 문의 (02)541-0113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 제공
①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가 객실 리모델링을 기념해 특별 할인가에 회원을 모집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숙박권 15매와 사우나 이용권 20매를 증정한다.
②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 99㎡ 거실
③ '미봉 고성 오션뷰 리조트'
④ '미봉고성오션뷰 리조트' 53㎡ 객실 내부 모습.

시장 과열엔 정교한 개입으로



이수준 역

부동산 수첩

한국 경제의 고질병은 자산 쏠림과 비생산적 신용 팽창이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부추기고, 그 자금은 생산투자보다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이 실물 가치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자산 보유자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무주택자는 부채만 키워서 서로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그렇다고 금리를 높이면 집값은 잡겠지만 실물경제 전체를 짓누르고 이미 벌여놓은 가계부채는 더욱 위태로워진다. 통상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정권 초기에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이에 새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자본규제 방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단선적 수단에서 벗어나, 신용 흐름의 조율을 통해 비생산적 대출을 구분해내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미 서울의 집값은 진보 정부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이후부터 급속도로 상승했다. 과거 보유세인상이 임대료 폭등으로, 양도세인상이 매물 잠금과 신고가 경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아파게 경험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언한 대로 세금 대

신 신용 경로의 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이나 ‘부문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sSyRB)’은 은행이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을 대비해서 특정 부문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금리를 높이지 않고도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고 대출 심사기준이 엄격해진다. 신용의 유입은 조절하되, 실물경제 전반에는 부담을 덜 지우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의 상향이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 상황에 대비하여 보유(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지급준비율이라면, 위험가중치는 반대로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손실 완충 자본을 더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약 15%,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정부나 공공기관 상대로는 0%, 상대적으로 위험한 신용대출이나 PF 대출의 경우 100%가 넘는 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같은 금액을 대출할 때 더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리 인상 없이도 자연히 주담대 공급이 억제된다. 이는 대출 총량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금융권 자원이 기업 대출 등 실물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도

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같은 감독행정의 영역은 국회의 입법 없이도 금융당국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민첩성을 높인다. 다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제한된 대출 여력이 우량 담보인 서울, 강남 아파트로만 쏠려 양극화를 키울 수도 있기때문에, 지역별 주택 공급 확대정책과 병행하는 등 보완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금융권에 대한 세제 개편도 선제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고금리 시기에 예금-대출 마진을 통해 고수익을 얻었지만, 이에 대한 조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과거 외환위기 시기에 사례가 있었던 특별부담금이나 초과이익세 같은 형태의 증세를 도입하면 조세정의 측면에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신용 팽창의 책임도 분담시킬 수 있다.

금리의 고통도 세금의 부작용도 모두 겪은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핵심은 자본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흘러가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단순한 긴축도, 맹목적 경기부양도 아닌, 자산 쏠림을 조정하고 생산적인 흐름으로 신용을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규제와 유인의 정교한 조합, 질서있는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넌뛰는 스테이블코인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시총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회사인 씨클 인터넷 그룹이 지난 5일 상장했다. ‘얼마나 성장하려나?’라며 구매한 주식은 64달러에서 약 10일 만에 298달러까지 오르더니 그 이후 18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시간이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이슈다. 이름답지 않게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코인만 들어가면 주식이 널뛰다. 네이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선점하겠다고 하자마자 주가가 25만6500원에서 40%나 급등했다.

키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전 달 2만8800원에서 6만4000원까지 올랐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상표를 출시하고 있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 정책과 법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우선 뛰어들고 보자는 의도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다는 장점 만큼이나 위험 요소가 많다.

앞서 실리콘밸리은행(SVB)은 고객 예금을 장기 국채에 투자했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가격이 하락했다. 예금액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 고객들은 예금 인출을 강행했고, 실리콘밸리은행은 손해보고

국채를 팔면서 유동성 위기가 와 파산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또한 안정적인 화폐를 대신해 주로 국채를 보유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이를 우려한 고객을 중심으로 코인런이 일어나게 되면 거래소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은행도 파산, 한 나라의 경제까지 휘청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순탄할 것 같았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도 하원에서 연방기관의 역할,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따른 은행업에서의 분리 문제 등을 이유로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기업의 수익원, 시장의 활성화 만큼이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늦더라도 확실한 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6월 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48년생 2보 전진하기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60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72년생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84년생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소

37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49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61년생 이기고 더 큰 것으로 나아간다. 73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5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라.



호랑이

3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5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2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74년생 오늘은 나만을 위해 지출을 해보자. 86년생 동부서주 바쁘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



토끼

39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5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니 쪽빛보다 더 푸른 법. 63년생 추억으로 기분을 달랠라. 7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87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용

40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52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 가서 뽕이. 64년생 자기검은 카드란 덕목. 76년생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아름답다고 연못에 빠지려는가. 88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중요



뱀

41년생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53년생 외출할 때 이륜차를 조심. 6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길이 보인다. 77년생 충동적인 사치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는다. 89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나면 된다.



말

42년생 누구든 연인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세상사. 54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66년생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78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90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양

43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 5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니 쪽빛보다 푸르다. 67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79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금계획부터. 91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원숭이

44년생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 해야 한다. 56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68년생 독단에 빠지면 위기가 오니 겸손하게 소통을. 80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92년생 간절한 기도는 가피를 불러온다.



닭

45년생 자식의 잘못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57년생 감사한 마음은 항상 기회를 제공한다. 69년생 빨간색 우체통을 보니 공연히 반갑다. 81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93년생 제3자로 해서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개

46년생 주식투자는 시간 낭비. 58년생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70년생 시골로 이사 가려면 먼저 한달 살아보기를 해보자. 82년생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계획을. 94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이다.



돼지

4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59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 83년생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95년생 만난 연인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김상회의四季

말년 자식 운



나이 든 사람에게 손주는 보물이다. 손주를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한다.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스럽지만, 나이 들어 손주를 보면 자식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손주와 즐겁게 지내고 자식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말년 운이 좋은 사람에 속한다. 명리학에서는 말년 운과 자식 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사주에서는 시주時柱가 그 사람의 말년과 자식 운을 보여준다.

시주가 좋으면 나이 들어 알찬 수확을 하고 그런 수확이 바탕이 되어 자식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변한다. 남자는 시주에 정관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여자는 식신이 있으면 자식 운이 좋다. 자식 운은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과 자식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은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모두 좋은 자식 운이다. 자식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좋은 자식 운이다.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자식이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본다면 그 어떤 것보다 자식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말년에 손주와 즐겁게 보낸다는 건 손주는 물론이고 자식과도 사이가 좋기 때문이다. 결국, 말년 운이 좋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 젊어서는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식 운이 모든 걸 결정한다. 자식이 기술풀이 뛰어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돈 많은 사람에게도 부러운 대상이 된다. 초년 중년 말년 중에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식 운은 말년 운의 큰 축을 담당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0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국제회의 아시아 1위·세계 3위

도쿄·파리 등 제치고 성과

서울이 지난해 총 18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연 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마이스(MICE) 도시로 잘 알려진 도쿄와 파리 등을 제치고 세계 3위, 아시아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국제협회연합(UIA)이전 세계 1034개 도시에서 열린 국제회의 8859건을 분석한 결과, 도시별 개최건수 순위에서 ▲1위 벨기에 브뤼셀(338건) ▲2위 오스트리아 빈(239건)

▲3위 대한민국 서울(180건) ▲4위 스페인 바르셀로나(159건) ▲5위 일본 도쿄(148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은 2023년 아시아 2위, 세계 4위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해 2024년에는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성과를 두고, 국제회의 유치와 종합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데다, 해외홍보관 상담 운영 등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구리시, ‘시금고’ 재지정 약정 체결

NH농협·KB국민은행 협력

구리시는 지난 27일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 및 KB국민은행 구리종합금융센터와 시금고 업무 취급을 위한 약정식을 체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약정식에는 박현숙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장과 김용태 KB국민은행 구리종합금융센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 시금고 재지정이 진행됐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 및 기금을, KB국민은행은 특별회계를 담당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구리시의 모든 자금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시의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 관리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며 재정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예정이다. /구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한신학원 이사장에 오용균 목사 선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상규)에서 직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한신대·영생고) 제33대 이사장에 청주 덕촌교회 오용균 목사가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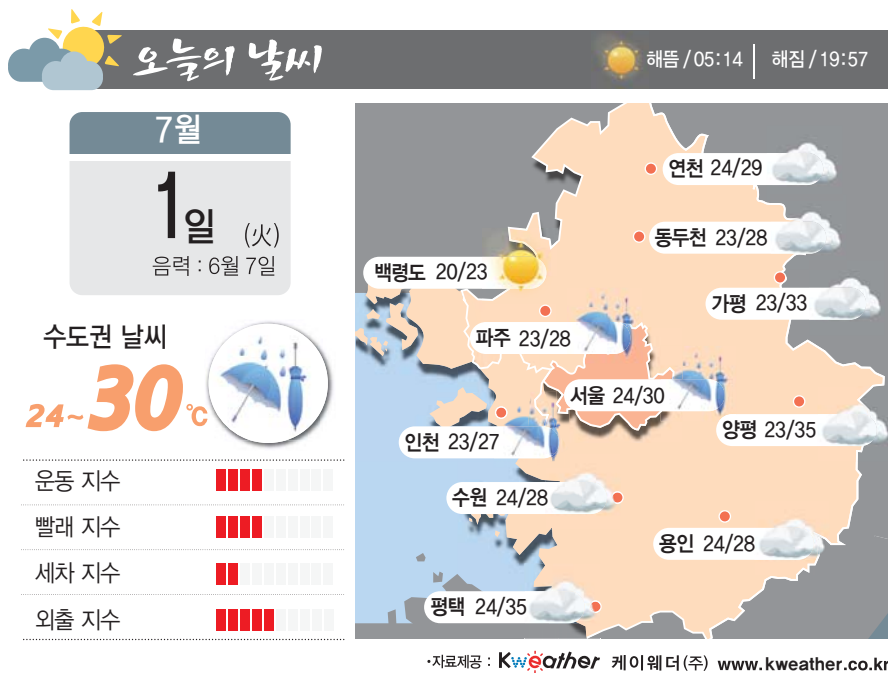
한신학원 이사회는 26일 한신대 서울 캠퍼스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오용균 이사장(60세·사진)을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1964년 충남 논산 출생인 오용균 이사장은 1983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으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1986년 집시법 위반으로 1년간 구속됐다. 석방 후 청주지역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해고된 뒤 한신대에 복학, 1992년에 졸



업하고, 2001년에는 한신대신학대학원에서 석사(M.Div)를 받았으며 2015년 목회신학(협동과정) 박사 과정에 진학해 학문적 깊이를 더했다.

오 이사장은 충북 괴산군 제월교회를 시작으로 청주시 덕촌교회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으며, 충북노회장과 충북CBS 운영이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서기를 역임했고, 현재 충북노회유지재단 감사로 맡고 있다. /이현진 기자



기초학력 보장, 정신건강 위기 대응 ‘학습진단센터·병원학교’ 정책 제안

서울시교육청

새 정부에 12개 혁신 방안 제시
학생 마음건강 등 현장 중심 과제
선생님 동행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와 ‘병원학교’ 설립 모델의 국가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0일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한 과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이다. 이 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 문제를 심층 진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교육청은 이 모델이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안도 제안의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그간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 과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메트로신문 기자

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 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대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 ‘SEM119’ 등의 법률·제도적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밝혔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한 ‘농촌유학’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222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협력, 안정적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 유아교육 확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추진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 교육공약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진숙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균형 발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지역·사립대 동반성장 추진”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서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30일 첫 출근길에 나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을 지냈으며,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정책은 서울대 수준의 지역 거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대를 10개 이상 육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국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점국립대 중심 정책’으로 인한 지역 사립대 소외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과 입시 과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가 생기면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수요도 줄어든 것”이라며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에는 원칙을 지키되 다양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나 역시 대학 총장 시절 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했다”이라며 “등록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재정 위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핵물질 어디갔나... 트럼프 폭격에 IAEA 감시 난항
▲美항공사, 트럼프 영토 편입 의지 드러낸 그린란드에 직항 개설 /사진 뉴시스

▲트럼프 감세안, 3.3조달러 부채 추가... ‘달러 위협’ 경고 나와
▲맘다니 “억만장자 필요 없어”... 트럼프 “뉴욕 돈줄 끊겠다”

▲경제학자 90% “5~10년 내 달러 안전자산 지위 우려”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부 인수자 찾았다... 2주 후 공개”



관광객 증가에도
면세점 매출 폭
체질변화 시급
너



Life

제약·바이오
건기식·화장품 등
사업 다각화 성과
L2



문화재 지키고, 보육원 후원... 작은 나눔이 미래의 희망으로



흥국생명

역사 인식개선·문화재 지킴이 활동
창덕궁 내 정원 조성, 환경개선 작업

산불피해지역 고객에 맞춤 금융지원
원리금 유예, 이자 감면 등 부담 줄여

“흥국생명은 언제나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도(精道) 경영을 추구합니다.”

70년 넘는 전통 위에 선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이사는 ‘고객과 함께 숨쉬며 내일을 꿈꾸는 회사’를 약속하면서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덜고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은 현장에서 구체적 사회 공헌으로 구현되고 있다.

흥국생명은 올해 문화유산 보존·재난 금융지원·취약계층 돌봄·자원순환 캠페인 등 ‘네트워크형 나눔’에 참여했다. 창덕궁 환경정비, 산불 피해 금융지원, 빵·육아키트 제작, 물품 기부 등 활동별 특화 프로그램만 10여건에 달한다. 현장 참여 인원은 400여명, 기부·후원 규모는 1억원을 넘어섰다. “작아 보여도 꾸준한 나눔이 고객 신뢰로 돌아온다”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 문화·환경 함께 지켜 미래를 밝히다

흥국생명은 역사 인식 개선 및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를 지키는 일이 결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방침에서다.

지난 4월 서울 창덕궁 정원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을 돕기 위해 창덕궁 내 정원 조성 및 환경 개선 작업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국가유산 해설을 통해 창덕궁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문화 보존의 열기는 자원순환으로도 이어졌다. 5월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물품기부 캠페인’에는 의류·가전·도서 등 250여점이 모였다.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위생가전과 유아용품, 식품류는 모두 미사용 제품으로 실용성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서울시립 서대문 노인복지관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희 흥국생명 인사팀장(오른쪽)이 지난 1월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이성일 인천 해피홈 보육원 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미혼모 가정에 전달할 수면조끼 및 육아키트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국생명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됐다. 기부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되고 수익금은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쓰지 않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 재난과 금융 사각지대에 ‘든든한 버팀목’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자 흥국생명은 산불 피해 지역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보험료·대출원리금 6개월 유예, 사고보험금·제지급금 신속 지급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즉시 가동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감면 혜택도 추가로 제공해 재난 피해 고객

금융취약계층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배구단과 기부금 적립해 보육원 후원

임직원·가족 직접 만든 빵 나눔 활동 수면조끼 등 제작해 미혼모가정 전달

의 부담을 줄였다.

금융취약계층 보호책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진행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서는 고령층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최신 피싱 수법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법을 강의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건강검진 결과’,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해 악성 링크를 보내

는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소개하고 피해 상황 발생 시 경찰 및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흥국생명은 “디지털 금융이 발전할수록 취약계층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이들의 꿈·가정의 안심을 위한 따뜻한 손길

올해 1월엔 프로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홈경기장에서 해피홈 보육원 아동에게 600만원을 후원하고 경기 관람 기회를 선물했다. 후원금은 노후 시설 보수와 학습환경 개선에 쓰였다.

후원은 핑크스파이더스 배구단의 연고지인 인천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활동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브에이스 기록을 통해 적립한 6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사랑의 빵 나눔’ 현장에서는 임직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여해 약 4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완성된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40여가구에 전달됐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빵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는 빵 나눔과 밀박스(식료품 상자) 전달, 동절기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적십자사에 기부한 누적 기부금은 약 6500만원에 달한다.

6월에는 임직원 70여명이 수면조끼·육아키트 80세트를 제작해 전국 미혼모 가정에 전달했다. 육아키트는 미혼모 가정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구성됐다. 키트에는 ▲디지털 체온계 ▲유아용 물티슈 ▲손목보호대 ▲멀티비타민 ▲유아 간식 등 다양한 생필품을 담았다.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는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다”며 “친환경 기업 활동, 다양한사회공헌및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202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 선정
▲엄원상·송민규·이상현 등 371명, 2026년 FA 자격 취득 /사진 뉴시스

▲“스포츠 중계권 담합”...중앙그룹, 공정위에 사상파 3사 제소
▲이종범 예능행 논란·이정후 부진...바람의 가문 ‘눈물’

▲프로야구 LG 김현수, 올스타전 역대 최다 16번째 출전
▲백남준의 일상·건축 모형...국립현대미술관, 자료 3만점 수집